



# 나눔이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의 아름다운 이야기"



# Contents



발행인 : 나눔이네 사람들  
편집인 : 문미향, 이정화, 오상민  
인쇄처 : 디자인접수함 TEL : 043) 855-2231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844-8150  
FAX : 843-9911

## 03 신규직원 인사말

### 거주지원팀

- 04 가온 이야기
- 05 나르샤 이야기
- 06 내담 이야기
- 07 다운 이야기
- 08 별하 이야기
- 10 산다라 이야기
- 11 아토 이야기
- 12 한별 이야기
- 13 나눔의집 이모저모  
- 우리 이렇게 지냈어요!!!

- 16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19 후원 안내 및 세입 지출
- 20 나눔의집 안내도 및 장애인생산물 소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  
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눔의집으  
로 연락주세요~

나눔의집 홈페이지  
<http://www.cjnanum.or.kr>

## 신규직원(순환보직) 인사



물리치료사 어혜림



안녕하세요. 저는 송덕재활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 8월 1일부터 순환보직으로 나눔의집 건강지원팀에서 근무하게 된 물리치료사 어혜림입니다.

어느덧 무섭도록 뜨거웠던 무더위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가을 햇살과 길가에 흐트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 국화의 모습이 한 편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계절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처음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병원과도 많이 달랐고, 적응하며 배울 점 또한 참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 난 후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와 간절했던 목표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고, 설레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전공 책을 넘겨보며 공부도하고 매우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눔의집에 입사한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용인분들과 선생님들 이름을 외우며 적응하기 바쁜 시간들이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복도와 호실을 지나다닐 때 이용인분들이 저를 향해 웃어 주시는 한분 한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쳤던 마음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빨리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의 꽃말을 담고 있는 10월 1일 탄생화 빨간 국화처럼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다사리자립체험센터를 다녀와서~’

## 가온 이야기

사회복지사 홍 승 현

가온호실에서는 자립생활에 관심이 많은 이용인 네 분을 모시고 지난 9월21일 다사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온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자립사례를 들으며 우리들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립하여 청주에서 살고 있는 박병준씨를 만나 자립 후 생활 및 지원이 되는 정부의 정책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직접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기에, 주위의 반대를 무릅 쓰고 자립한 박병준씨의 사례는 더욱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꿈을 꾸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립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헤쳐 나가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옥씨, 황진실씨, 강미숙씨, 조수희씨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권리에 따라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날들을 바라봅니다. 가온호실 “우리가 있을 곳” 사업이었습니다.



## ‘취직을 꿈구며~ 보호작업장 체험~’ 나르샤 호실 이야기

사회복지사 정해경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직은 덜 익은 가을빛이 머물던 9월 10일 나르샤 호실 이용인분들과 보호작업장 ZAN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잔이라는 어감이 참 예쁘다 싶었는데 잔은 컵의 우리말에서 유래한 이름 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담고 재활의 희망을 담은 ‘ZAN(잔)’, 종이컵 생산 및 임가공 사업(전자부품 포장 및 조립, 물티슈 포장)등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이며, 비록 단순한 작업이지만 손 기능과 이해력이 필요한 작업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ZAN에서는 현재 나르샤 호실 식구 중 김종식, 김종진씨가 훈련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포장 및 조립을 하는 잔 근로자들 속에서 종식씨와 종진씨를 발견한 오국씨가 작업하는 두 분을 보고 엄지척을 해 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종진씨는 어깨를 으쓱해 하며 작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종식씨도 그에 질세라 빠른 손놀림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지켜보던 정구씨는 본인도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기도 하셨고,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ZAN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처럼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나르샤 호실 식구들에게는 오늘처럼 궁금한 것도 묻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ZAN에서 근무 중인 종식씨와 종진씨에게도 자신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서툴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기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보호작업장 ZAN이라는 곳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신 ZAN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작은 손놀림이 어느 순간에 큰 결실을 맺고 그로인한 만족감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직업재활 시설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 봅니다.



## 사회복지사 이 강 훈

금년 8월 1일 순환보직으로 나눔의집과 인연이 되어 내담 호실에 동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갓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사진 속 내담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진 속 이미지는 9월 28일 계절 활동으로 내담 가족이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에 다녀온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친근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내담 가족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셨다면 이질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대상은 그대로이고 배경만 달라졌을 뿐인데 말이죠. 아마 편견 때문이 아닐까요?

내담 가족은 구성원 개개인이 개성을 지니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일상과 같이 또 다른 이웃이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신다면 내담 가족 모두가 일상에서 만나는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담 호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더하여 뒤에서 묵묵히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응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사랑~ 가을향기 맞으며~  
즐거운 나들이~ **다운 이야기**



사회복지사 **박 경 춘**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덧 남자의 계절을 알리는 가을 향기가 솔~ 솔~ 다운 호실 이용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기 위해 이용인들을 모시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하였지만 전날부터 기대를 많이 했던 터라 드라이브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온천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수안보로 출발~ 수안보에서 벚꽃 길로 유명한 산책로에 도착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희~ 희~ 소리를 내며 즐거움을 표현하시는 삼열씨, 밖에 나온 것이 마냥 행복한지 계속 웃기만 하시는 지호씨를 보며 '나오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이용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어 답답했던 마음을 뺏~ 뺏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활동으로 이용인들의 기분전환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는 나눔의집으로 귀원하였습니다. 다운 가족분들 모두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다운 호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운호실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별하의 빛나던 어느날~’  
**1박2일 캠프 이야기**

사회복지사 **강 미 정**

무더위가 한껏 치솟던 8월 별하의 식구들은 원주 피노키오로 숲체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꽃단장하고 기분 좋은 출발~

휠체어에 앉아서 또는 버스에 앉아서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지요.

피노키오 체험장에 도착하여 1박 2일 동안 진행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허기진 배를 달래었습니다.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긴장했던지라 너무 피곤하여 잠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후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를 반기듯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꽃을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하고 풀벌레 소리를 감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천연 염색을 이용한 손수건도 만들어 보고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나만의 손거울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리며 만든 손수건은 아주 멋진 작품이 되어 선생님들의 자랑이 되었고 손거울은 우리의 예쁜 얼굴을 더 예쁘게 만드는 마법의 거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별하 식구들은 만능인 가봅니다^^

저녁시간에는 언제나 진리인 고기를 맛있게 구워먹고 주변 산책도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시원한 아침공기를 맡으며 일어나 외출할 준비를 마친 후 마지막 일정한 방향제 만들기 장소로 향했습니다. 방향제의 향을 맡아보며 더욱 도도하고 향기 나는 별하의 아가씨들로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하였지요.



아쉬움의 단체사진과 함께 피노키오 체험장의 마지막 일정을 마친 후 충주로 이동하였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던~ 마지막 종착지!!

맛있는 한우를 구워먹으며 별하의 이번 캠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별하 식구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날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캠프를 위해 양손가득 선물을 들고 깜짝 방문을 해주신 원장님, 지상한 보라씨 어머니와 아름다운 봉사자님들, 멋쟁이 오상민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장 멋진 순간 우리와 함께 해준 사랑하는 별하 식구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 ‘하하호호’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산다라 호실 드라이브 이야기~

사회복지사 유 혜 인

화창하고 햇살이 따사로웠던 9월의 하루 산다라 호실에서는 충주댐 일대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설레는 기분과 들뜬 마음으로 가는 동안 “하하호호” 웃으며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산다라 호실 이용인, 선생님 모두 탑승완료.  
충주댐으로 출발알~~~~!!

달리는 버스 창문사이로 보이는 파릇파릇한 나무들, 색색별 예쁘게 피어 있는 꽃들,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강물을 보며 웃고 있는 이용인분들의 환한 표정을 보니 덩달아 저희의 입가에도 미소가 띄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충주댐 일대에 도착하여 산책도 하고 예쁜 꽃들과 맑은 하늘을 배경삼아 사진도 찍으며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 하나의 산다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밖으로 나왔다는 설레임에 이용인분들도 기분이 좋았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렸던 태식씨,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며 즐거움을 표현했던 아름씨, 수줍은 소녀의 미소를 띄고 있었던 송여씨, 시크하며 도도한 표정을 지으신 근오씨, 오랜시간 휠체어에 앉아 힘들었을 텐데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두식씨, 인구씨의 행복한 미소로 인해 오늘의 드라이브가 더 의미가 있고 뜻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하고, 꽃처럼 예쁜 미소를 잃지 않고 산다라 호실 이용인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사랑합니다~♥



## 설렘이 가득한~ 아도이야기

사회복지사 전 병 민

무더운 여름 8월 1일부터 송덕재활원에서 나눔의 집 아토포실로 순환보직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된 전병민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높은 하늘이 나눔의 집을 비춰주는 9월 가을이 왔네요.

가을을 맞아 저희 아토포실에서는 계절활동으로 중앙탑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용인분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9월 14일 출발시간이 다가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네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나들이를 가는 것을 하늘이 알았는지 비는 금세 멈추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체리블러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쉽게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과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아토포실 이용인분들이 맛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사회복지무원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음식들이 맛있는지 만족해하시는 이용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지원해주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배불리 배를 채운 후 중앙탑 공원에 도착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며 경치를 감상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라 그런지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주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공원을 돌며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예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기와와 나무로 지어진 카페에 들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가을 나들이를 마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나눔의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나눔의집에서 이용인분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기에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용인분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람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빨리 적응하여 아토포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호실 이용인분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가을향기 맞으며 신나는 드라이브~’

사회복지사 오 은 순

# 한별 이야기

9월 5일은 한별 호실 가족 모두가 충주댐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향기가 불어오자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이용인 분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개구쟁이 선아씨는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고 수정씨는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 정신없이 고개를 돌리며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미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응연씨는 걱정이 무색하게도 환한 얼굴로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선착장에 들어서서 커피와 간식을 먹는 간식타임도 갖고 멋진 유람선이 오가는 충주호를 바라보면서 가을향기를 듬뿍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복순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과자를 가져다 먹느라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그래도 밖으로 나와 드라이브하고 멋진 경치도 구경하고 맛난 간식 먹으니 모두들 기분이 좋은지 과자를 빼앗겨도 화를 내는 사람이 없네요.

늘 간섭받기 싫어하시는 소라씨는 밖에 나와서도 종종 단체행동에서 이탈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많이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 입가엔 어느새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별 가족 모두모두~~

♡♡♡~사랑해요~♡♡♡

## 이런일저런일



- 일사: 7월 2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2018 나눔의집 상반기 사업평가



- 일사: 7월 6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호암자산책 푸드트럭 방문



- 일사: 7월 27일
- 장소: 크리스탈볼리장
- 내용: 충북장애인체육회 볼링교실 진행



- 일사: 7월 30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신규직원 채용 면접



- 일사: 8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순환보직대상자 임명장 전달



- 일사: 8월 2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에클레시아 클래식 연주단 방문 및 공연

## 이런 일저런 일



- 일시: 8월 9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이용인 대상 개인정보교육, 보건교육 실시



- 일시: 8월 1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송덕교회 방문 및 여성성경학교 진행



- 일시: 8월 13일
- 장소: 원주 피노키오휴양림
- 내용: 한별, 별하 호실 1박2일 캠프



- 일시: 8월 20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소리모아중창단 수업 진행



- 일시: 8월 25일
- 장소: 대전 예술의전당
- 내용: 나눔의집 소리모아중창단 뮤지컬 관람



- 일시: 8월 26일
- 장소: 대전 예술의전당
- 내용: 나눔의집 소리모아중창단 뮤지컬 관람

## 이런 일 저런 일



- 일시: 8월 27일
- 장소: 원주 피노키오 체험장
- 내용: 기온호실 1박 2일 숲 캠프 진행



- 일시: 9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전체직원회의



- 일시: 9월 10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 일시: 9월 16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 일시: 9월 16일
- 장소: 충주 호암예술관
- 내용: 제 3회 충주시 어울림누리가요제 참가 및 우수상 수상



- 일시: 9월 20일
- 장소: 안동 유교랜드
- 내용: 안동 민속마을 방문 및 체험활동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7.1  
~9.30

## 방/문/후/원



(주)영진유통  
(주)토탈레저  
30기주춧돌모임  
JS타이어존  
강미정  
경대수  
경영자문위원회  
권옥연  
김경혜  
김금숙  
김민영  
김병진  
김태영  
나눔사랑회  
남양유업  
남해정  
대장군식당  
동산아린이집  
박만원  
박명순

신발 10켤레  
기저귀 25box  
빵 100개  
전동스쿠터(나들이100) 1대  
레이퀀젯병소독기 1대, 책 100권  
맥심커피믹스 3팩  
수박11통  
양말 10켤레, 커피 2팩  
베이컨(1kg) 3봉지, 콩비지(2kg) 15개  
바나나 1box  
고소한 아몬드&잣 두유 1팩, hp프린터기 1개  
아이스크림 50개  
참쌀과자 3봉지, 야쿠르트 5set  
조끼 50장, 피코닉 3박스, 하니버터칩 32개  
냉장고 1대  
의류 7장  
우유 10box, 떡 4box, 소고기 15kg  
박카스 1박스, 보령비타C플러스 1박스  
강낭콩 18kg  
하이벨 다용도 핸드믹서 1개, 멀티슬라이서 1개,  
그릴 펜 1개, 활토구이불판 1개, sandwaffle  
grill 1개, 핸드믹서(줄리엣) 1개, 젓가락세트  
1개, 반찬통세트 1개, 슬로우쿠커 1개  
도넛 1box  
아이스크림 120개  
빵 150개  
옥수수 2저루  
사과 2box  
콘푸루스트 12개  
직화구이냄비 3개, 코코넛티포트 1개, 무선전기  
주전자 1개, 진라면 3BOX, 휴지(30롤) 4봉지,  
전기요 1개  
아몬드쿠키 8팩, 과자 8봉지, 칸초 9개, 바나나  
1box  
복숭아 9박스, 소면 28봉지  
pet컵 7box  
돈육 15kg  
건빵 1box  
커피포트, 의류(모자외 4), COSMO 슬로우쿠커,  
지갑 2개, 조끼 2장  
옥수수 200개  
테팔전기찜기 1개  
수박 2통  
견과인애플 150봉지

뽕곶은마을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서울유통(주)  
석중사  
성모요양병원  
성심맹아원  
소리모아중창단

송덕교회

송덕재활원  
신해(한터)  
앙드레공  
양의문교회  
어혜림

염정희  
오상민  
우미건설  
월코

유영철  
유옥화  
윤전순  
이동민  
이수연  
이승한  
이재순  
이주영

이혜영  
임광운  
장옥순  
정유미  
정유진  
정지원  
정해경  
제천관광(정연숙)  
조수정  
채금순

채선병  
최길우  
최면상  
최봉영  
최성규

최용범  
충주사과한과  
충주시청  
충주축산농협  
충청북도도청  
충청북도종합장애인복지관

푸드뱅크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읍성지사  
햇살봉사회  
호임알미눔(김일식)  
홍승현

홍진환경

핸드블렌더 세트 1개, 전기오븐기 1개, 접시  
세트 1개, 3단 찬합세트 1개, 미니배낭 1개, 컵  
세트 1개  
귀마개 1개, 모자 1개, 가방 1개, 유리컵  
세트 1개  
바나나 2수, 과자 3봉지  
오이지 16kg  
박카스 20봉  
사과 4box  
고춧가루 5근  
양말 4켤레, 의류 24장, 목도리 2개, 지갑 1개,  
퍼즐 1개, 무드등 2개, 신발 2켤레,  
신발 3켤레, 상의(점퍼) 3개  
고춧가루 18kg  
빵 272개  
브로컬리 30kg  
가방 4개  
양말 15켤레, 가방 132개, 신발 76켤레  
책(피카소 동화나라) 세트  
의류 7장  
삼추 5kg  
해피콜 스페셜구성 2종 냄비세트 1개, 36종  
컬러연필세트 1개, 똑배기세트 1개, 헤어롤  
(전기 파마기) 1개  
의류 108장  
계란 41판  
사과 1box  
사과 1박스(15kg)  
시장피자 10판, 빅파이 6팩, 야쿠르트 5set, 치킨  
6마리, 카스타드 5봉지, 피자 5판  
가방 1개, 의류 7장  
한과 4box  
세탁세제 36개, 화장지 6봉지  
한우 30kg  
물티슈 120개  
브로컬리 15kg, 엄화칼솜 6포, 기저귀(20  
개입) 1봉지  
생달 50마리, 도넛 20팩, 가지 15kg, 생달 50마리  
과일 5box, 고기 1box  
감자 12kg  
아이스크림 1000개, 신발 4켤레, 의류 22장  
자켓 1장, 원피스 2장, 빈버지 1장, 원목차장  
1개, 아전침대 1개  
팥빵 240개, 카스테라빵 183개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방/문/후/원



7/23 나눔사랑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9/7 충주시청 후원물품 전달



9/18 대한미용협회 미용봉사활동



9/19 한국전기안전공사 후원금품 전달



9/20 농산물품질관리원 후원금 전달



9/20 한국도로공사 후원금 전달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정기후원** : 매월 1구좌(5,000원)이상 후원신청(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 → 지로나 자동이체로 입금 → 소식지 발송 입금확인

- 지로입금방법 : 본 원에서 발송되는 지로로 입금
- 자동이체방법 : (1) 거래하시는 은행에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본 원의 계좌로 자동이체신청  
(2) 나눔의집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이 가능하며, 나눔의집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물품후원** : 생활필수품, 교재, 교구, 의류, 간식 등

E·MART에서 즐거운 쇼핑을 하신 후 받으신 영수증은 고객만족센터에서 나눔의집으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바코드 확인 후 영수증은 돌려드립니다. 모여진 영수증 총계의 0.5%가 나눔의집 가족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자원봉사활동**

- 생활보호 서비스 보조 (목욕, 식사, 말벗되어주기, 산책, 종교활동 등)
- 가족 봉사, 미용봉사, 노력봉사 등



**해피빈 후원 해피빈**은 nhn( **NAVER** )이 운영하는 공익포털사이트입니다.

네이버 회원이면 누구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콩을 나눔의집 모금함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cjnanum.do>



**후원계좌번호**

- 지로 : 7607189
- 국민은행 : 402-01-0388-399
- 하나은행 : 691-810006-26805
- 신한은행 : 100-011-220720
- 농협 : 417015-51-051393
- 우체국 : 301507-01-002801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은 중증 장애인의 보육 및 치료,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됩니다.

## 2018년 7월~9월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수입		지출			
2분기 이월금	31,720,794	제수당&퇴직적립금	2,125,330	시설장비유지비	165,000
비지정(6월분)	8,023,370	일용집금	620,000	생계비	200,000
비지정(7월분)	9,127,680	기타후생경비	6,633,800	수용기관경비	461,440
지정(7월분)	210,000	회의비	-96,670	의료비	65,000
비지정(8월분)	9,561,790	여비	532,600	자활사업비	320,000
지정(8월분)	310,000	수용비 및 수수료	1,617,770	의료재활 사업비	27,300
공동모금회	4,020,000	공공요금	268,960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11,451,070
		제세공과금	243,400		
		치량비	562,000		
		기타운영비	398,000		
		자산취득비	755,780		
총수입 / 62,973,634원		3분기 지출금 / 26,350,780원			
		이월금 / 36,622,854원			



찾아오시는 길

자 가 용 : 충주IC → 충주방향 → 건국대 사거리(우회전) → 0.8km 직진 → 달신 사거리(좌회전) → 1.3km 직진 (우회전) → 150m 직진(개나리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지락

대중교통 : 충주 터미널 → 수안보 방향 버스 승차 → 수청골입구에서 하차 → 150m 직진 (개나리 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지락

장애인보호작업장 **월교**



www.ksdw.or.kr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상담 :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조돈길 301  
 T. 043) 851-1890 F. 043) 855-1892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종이컵 및 상자케이스가 필요하신분은  
 ZAN으로 연락주세요  
 T 043) 856-4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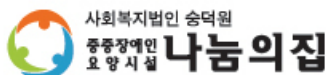


충주시 공식 1호 푸드 트럭



호암지 산책'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http://www.ksdw.or.kr/cjouim/  
 운영: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충주어울림센터  
 메뉴: 커피 & 차 및 간식류  
 장소: 호암지 내 생태전시관 앞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금)  
 문의: 043) 856-0509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 Tel : 043) 843-9912 || Fax : 043) 843-9911  
 http://www.cjnanum.or.kr/